

# 마무리 전상현·톱타자 이창진... 새 퍼즐로 반전 노린다



KIA, 지난주 부진 털고 선수단 재정비... 문경찬에 휴식  
이창진·홍중표 1군 등록 내외야 보강하며 자신감 부여  
맷 감독 “악재 겪는 건 흔한 일... 배우고 해결하는게 강팀”

KIA 타이거즈가 휴식과 새 얼굴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KIA는 7일 KT 위즈와의 홈경기에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전날 오른발 타박상과 왼쪽 허벅지 염좌로 엔트리에 빠진 김선빈에 이어 '마무리' 문경찬이 팔꿈치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됐다. 대신 KIA는 홍중표와 이창진을 등록하면서 내외야를 보강했다.

두 선수 모두 시즌 첫 등록이다. 특히 홍중표는 프로 첫 1군 등록이다.

홍중표는 강릉고를 졸업하고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은 '고졸루키'로 박민, 정해영과 함께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윌리엄스 감독의 조련을 받은 '야기호랑이 3인방'이다.

지난 시즌 팀의 주전 중견수로 활약했던 이창진은 허리 부상으로 스프링캠프에서 중도 귀국을 한 뒤 오랜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1군에 복귀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홍중표의 안정감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최근에 좋은 경기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캠프 때 봤을 때) 안정적인 선수였다. 옛 동료

인 크레이그 카운셀(현 밀워키 감독으로 현역시절 방망이를 높게 세우는 폼으로 유명)을 떠올리게 한다. 타격폼 등은 그와 다르지만 안정감을 주는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창진에 대해서는 “스프링캠프에서 (부상으로) 잠깐 봐서 다 파악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지프나 혼련 모습을 보면 좋은 선수이고 라인업 어디에 기용해도 자기 역할을 해줄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윌리엄스 감독은 등록과 함께 이창진을 톱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시키며 야수진에 새로운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마운드는 '휴식'으로 분위기를 바꾼다.

세 경기 연속 3실점으로 흔들렸던 문경찬이 휴식을 취하면서 심신을 충전하게 된다. 팔꿈치가 불편한 문경찬은 마운드에서 벗어나 몸상태를 끌어올리고, 최근 부진으로 흔들린 마음을 잡는다.

대신 전상현이 문경찬을 대신해 가장 늦게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윌리엄스 감독은 “점점 결과 몸에 큰 문제는 없

다. 팔꿈치 근육통 정도로 지금 일 타이밍이라 생각했다”며 문경찬의 엔트리 탈소를 설명한 뒤 “전상현이 당분간 마무리를 맡는다. 7-8회는 상대팀과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IA는 지난 주말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충격의 연패를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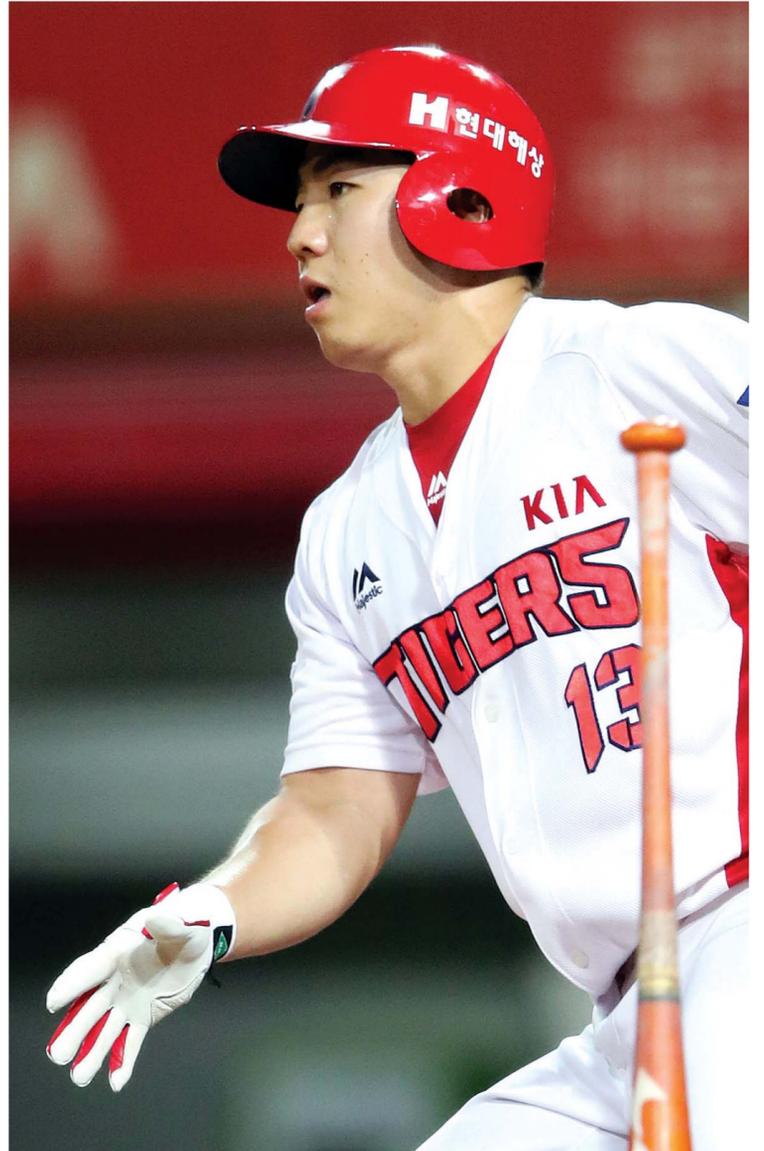
4일 경기에서 양현종이 4.1이닝 8실점으로 무너졌고, 5일에는 전상현과 문경찬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6-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끝내기 역전패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던 김선빈도 부상을 당하면서 충격이 더 컸다.

엔트리 변동으로 분위기를 바꾼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들과 마주해 ‘자신감’도 심어줬다.

“시즌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어떤 팀이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다. 거기서 배우고 해결책을 찾는 게 강팀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감독, 코칭스태프는 선수들이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인한다. 지난 주말 이길 수 있는 흐름에 있었고, 그 흐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선수들과 미팅을 했다. 우리가 50경기를 했는데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해줬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스 감독이 새로운 퍼즐 조각과 믿음으로 ‘창원 연패’의 충격을 빨리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창진

## 덕아웃 T 특특

## 윌리엄스 감독 “양현종 괜찮다”

▲괜찮다 = 윌리엄스 감독이 양현종의 정상 출격을 예고했다. 양현종은 지난 4일 NC전에서 백투백 홈런을 맞는 등 4.1이닝 8실점을 기록했다. 6월 21일 등판에서도 4이닝 8실점(7자책점)으로 부진했다. 7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양현종에 대한 질문을 받은 윌리엄스 감독은 “세부적인 부분 살펴봤는데 몸상태, 컨디션이 지금까지는 괜찮다. 평균 구속은 지난해보다 더 올랐었다. 그 점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는 체인지업 제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인지업을 최근 부진 이유로 꼽은 윌리엄스 감독은 양현종의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예고했다.

▲잠을 못 잤어요 = ‘고졸 루키’ 홍중표의 떨리는 출근길이었다. 홍중표는 7일 프로데뷔 후 처음 엔트리에 등록됐다. 전날 저녁 클럽 전화를 받은 홍중표는 “이야기 듣고 잠을 못 잤다”며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얼떨떨하다. 정신이 없다. 정신 못 차리겠다”고 떨리는 1군에서의 첫날을 이야기했다. 이어 “꾸준하게 안 다치고 하면 기회는 온 것 같다.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왔다”며 “(다른 팀 동기들이) 경기 뛰는 것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다. 잡하기보다는 실수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승택이밖에 안 보였어요 = KIA 사이드암 서덕원은 지난 2일 한화전을 통해서 입단 5년 만에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6-1로 앞선 8회초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나온 서덕원은 첫 타자 정은원과 13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볼넷을 허용했다. 앞선 세 타석에서 멀티히트와 볼넷을 기록하는 등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하던 까다로웠던 타자.

서덕원은 “처음에는 (포수) 승택이밖에 안 보였”다며 “(정은원) 계속 커트하면서 오히려 긴장이 풀렸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볼을 던질 수 있었다”고 웃었다. 이어 “돌아보면 볼넷이 가장 아쉽다. 볼넷 줄이면서 다음에는 더 발전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손흥민 로리스와 충돌·화해... 무슨 일 있었길래?

EPL 에버턴전 선발 출전  
손, 다가가 말 건네 훈훈한 마무리  
득점포는 4경기째 침묵

손흥민(토트넘)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개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 가운데 토트넘은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에버턴을 제압했다.

손흥민은 7일 열린 에버턴과의 2019-2020 EPL 33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 후반 33분 스테번 베르흐베인과 교체될 때까지 뛰었다.

최근 2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했던 손흥민은 이날은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는 못했다.

이날 선발 출전으로 손흥민은 EPL 통산 155번째 경기에 나서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활약했던 박지성(154경기)을 앞질러 역대 한국 선수 EPL 통산 출전 순위 단독 2위로 올라섰다. 1위는 스완지시티와 뉴캐슬 등에서 187경기를 뚫 기성용이다.

토트넘은 전반 24분 나온 상대 수비수 마이클 킨의 자책골을 끝까지 지켜 1-0으로 승리, 승점 48로 8위에 자리했다.

최전방 공격수 해리 케인의 왼쪽에 선 손흥민은 공격적인 움직임 속에 골문을 노렸다.

전반 24분 나온 상대 자책골 상황에서도 기적 역할을 했다. 손흥민이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수비 사이로 짧게 내준 공을 케인이 연결했고, 지오바니 로셀소의 원발 터닝 슈트 킨의 몸을 맞고 들어갔다.

전반전이 끝나고는 손흥민과 토트넘 골키퍼 위고 로리스가 언쟁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라커룸으로 향하던 로리스가 손흥민 쪽으로 달려가 무엇인가 말하며 분개했고, 손흥민도 지지 않고 달려들었다. 동료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말리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하프타임을 맞이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전반 추가 시간 상대 공격수 히살리송에게 위협한 슈팅 기회를 내준 상황이 원인



손흥민(왼쪽 두번째)이 7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 경기에서 승리한 뒤 전반 종료 후 다뤘던 위고 로리스와 포옹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모리뉴(맨 오른쪽) 감독이 두 사람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후반 시작 전 손흥민이 로리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로리스도 손흥민의 머리를 감싸며 대화해 둘은 화해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은 후반 들어 잇달아 매서운 슈팅으로 골대를 위협했으나 추가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후반 8분 후반에서 길게 넘어온 패스가 수비 뒷공간을 침투한 손흥민에게 단번에 연결됐고,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파고들어 태클을 피한 뒤 오른발 슈트를 날렸으나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 19분에는 페널티 아크 왼쪽 지역에서 때린

오른발 슈트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다.

손흥민은 경기를 마치고는 로리스와 포옹해 양극을 털어냈다.

로리스는 경기 후 “우리가 압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내줬다”며 히살리송의 슈팅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이날 승리로 모리뉴 감독은 EPL에서 역대 5번째로 통산 200승 고지에 올랐다. 326경기 만에 200승을 달성,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322경기)에 이어 최소 경기 2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 메이저리그 개막일 ‘코리안 더비’

사무국, 리그 일정 발표  
토론토 vs 탬파베이 대전  
류현진 선발 유력... 최지만과 대결

원손 투수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전에서 최지만(탬파베이 레이스)과 맞붙는다.

MLB 사무국은 팀당 60경기를 치러 포스트시즌 진출 팀을 가리는 2020시즌 초미니 정규리그 일정을 7일 발표했다.

알려진 대로 토론토는 25일 오전 7시 40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탬파베이와 원정 3연전의 첫 경기를 치른다. 토론토의 1선발 투수인 류현진은 이 경기에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류현진은 탬파베이와 3연전을 마친 뒤 곧바로 워싱턴DC로 이동해 작년 월드시리즈 우승팀 워싱턴 내셔널스와 2연전을 치른다.

원정 5연전이 끝나면 홈인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센터로 돌아가 30일부터 워싱턴,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5연전을 벌인다.

류현진이 부상 없이 시즌을 시작한다면 25일 탬파베이, 30일 워싱턴, 8월 5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8월 10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 잇달아 등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지만의 탬파베이는 토론토와 3연전 후 애틀랜타, 볼티모어 오리올스, 보스턴 레드삭스와 차례로 격돌한다.

추신수의 텍사스 레인저스는 25일 9시 5분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 개막전으로 시즌을 시작한다. 경기는 새로 개장한 홈구장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다.

텍사스와 콜로라도는 22~23일 글로브라이프 필드에서 시범경기로 전력을 예열한다. 텍사스는 콜로라도와 주말 3연전을 치르고 29~30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홈으로 불러



류현진

최지만

경기를 더 벌인 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원정 6연전에 나선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를 노리는 김광현은 25일 오전 9시 15분 홈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3연전에서 빅리그의 첫발을 내디딘다.

올해 MLB 각 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 양대리그의 같은 지구 팀끼리만 정규리그에서 대결한다.

같은 리그 지구팀과는 40경기, 다른 리그 지구팀과는 20경기를 치러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팀을 가린다.

이에 따라 같은 동부지구에 속한 류현진과 최지만을 빼고 김광현(중부지구), 추신수(서부지구)는 정규리그에서 서로 볼 일이 없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는 24일 오전 8시 뉴욕 양키스를 홈인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로 불러 올해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전을 벌인다.

정규리그는 9월 28일 막을 내린다. /연합뉴스